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누리의 참된 주인공, 색신으로서의 '나'

중생불 ①

경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 중생이 됐다 말이지. 중생이 됐는데 이걸 중생이라고만 말하는 게 좀 어색해. 그러나 부처님도 중생이라 말 하나까 따라서 말하는 거지만 이젠 꼭 바로 말하자면 중생불이요. 중생불. 왜 그러냐. 우리는 중생불이기 때문에 중생놀음 하는데 실은 우리가 부처거든요. 왜 부처냐. 말씀한 그 자리가 부처인데 우리가 부처가 아니라 하면 말이지 말은 어떻게 하며 남 보기는 어떻게 보며 듣기는 어떻게 들으며 생각은 어떻게 하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 이거 부처자리라 말이지. 또 번뇌망상 일으키는 이것도 부처자리예요. 솔직한 말로 부처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에 휘둘러서 번뇌망상을 일으킬 따름이지 사실에 있어서는 부처는 틀림없는 부처거든요. 달리 제도 받을 사람도 없고 제도할 사람도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또 부처님께서 내가 제도를 했느냐. 내가 제도를 했느냐라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의 말마디가 떠올라. 따라서 또 제도를 받았느냐라 하면 중생이란 말마디가 하나 딱 하게 나타내. 그러하면 이거 또 수작놀음이기도. 모습 놀이거든요. 상놀음이기도. 그러하기 때문에 제도를 해도 제도 받을 사람이 없느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원리 원칙은 그러나 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부처 씨가 있고 또 열반묘심으로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싸움을 하더라도

그놈이 열반묘심이 있기 때문에, 본래 적멸성인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본소식을 모르고 그만 경계에 나타난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만 내 세상이다 해서 말이지 그렇게 하니 이거 딱 하단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중생은 중생이라. 부처는 부처인데 중생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우리는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그러면 실에 있어서는 중생 불인데 그 마음자리, 내가 지금 술 먹고 싸움을 한단 말이지. 이 술 먹고 싸움을 하는 놈이 무엇이나면 전부 망상덩어리거든. 알음알이 놀이거든. 요놈인데, 그러면 망상덩어리가 술을 먹고 싸움을 한다 말이지. 그러면 부처 아닌 거 아닌가? 하지만 그거 아니라. 내가 술 먹고 싸움을 하는 걸 알아. 요놈이 부처란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두 나 아닌가? 둘 아니라 하

난데 행동을 둘로 하는데 그만 싸워. 저 놈이 밟다 말이지. 저 놈 밟다고 생각하는 그놈이 부처자리거든. 그러나 그대로 행동을 옮겨. 미우면 밟다 좋으면 좋다 이런 행동을 옮긴다 말이지. 옮겨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알음알이. 그렇게 보면 되요.

그러하기 때문에 원래 알음알이하고 진실하고 둘 아니건만은 그러나 경계에 휘둘러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이고 경계에 휘둘러지 안 해. 그대로 말씀한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경계가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본별도 할 줄 알아야 돼. 사실에 있어서는. 처음에 공부할 땐 본별을 치워야 된다 이래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본별해야 되거든. 잘 본별을 해. 본별을 하지만은 그 경계에 휘둘러지 않는 것. 요 자리란 말이예요. 요 자리가 부처 자리 아니냐?

“

중생불이라 중생놀음 하는데 실은 우리가 부처. 번뇌망상 일으키는 이것도 부처자리 달리 제도 받을 사람도 없고 제도할 사람도 없어.

”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하겠어요. 나는 생각을 하기를 내 생각이 옳은지 그렇지 이것도 내가 모르겠어. 이전 어른들은, 이전 어른들은 망심이 본적이고, 망령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망령된 마음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 상대성으로 우리가 삶을 굴러가는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긴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망심의 당처가 공했다 말이지. 분공한 것이거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든지, 좋은 생각을 가져서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그릇된 생각으로서 어긋난 행위를 한단 말이지.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씨가 알음알이 놀이가 그 당처 빈 거라. 적정한 거라. 그러하고 진경(眞境). 경계. 집도 경계요 우리의 색신 몸뚱어리도 경계요 산도 경계요 나무도 경계요 부는 바람도 경계요. 모든 것을 풀풀 뚫쳐서 티끌경계라 이전

어른들은 말씀하셨는데 진경이 본공이라. 비었어. 일체가 비었어. 이것도 여러 분들이 아시는 거 아니냐? 아무리 태산준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품이 빈 거 아니냐? 공성 아니냐? 그러니까 삼으로 푹푹 파지기도 하고 대포알을 집어 던지면 그 놈 산이 몽개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 빈 성품이 아니면 절대 안 그래. 우리의 몸뚱어리 이것도 빈 성품이거든. 적혈구 백혈구로서 모아진 하나의 가족주머니라 해도 사실은 이거 빈 성품이예요.

그러나 그 당처 이것도 빈 것이거든. 이러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경계를 여의어라. 사상을 여의어라.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라. 그것 전부 헛거니라. 또 산하대지도 여의어라. 산하대지를 여의라 해서 깡그리 없애버리고 빈 걸로 보지 말고, 산하대지를 그대로 두고 그걸 빈 성품으로 바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다시 말하자면, 더 줄여서 말하자면은 망심이다. 우리의 마음씨, 망심이 본적이고 본래 적적이고, 진경, 티끌의 경계가 본래 비었다 말이지. 이것을 알면은 견성을 하느니라. 아마 이전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나 나는 부처님 말씀을 여러 조사님들 말씀을 거꾸로 한 번 뒤집어 볼 작정이야. 어떻게 하느냐 망념이 본적이고 망령된 여미가, 망심이 본적이고 진경이 본공이냐라. 이걸 알면은 견성, 성품을 보느니라 이래 하는데 나는 정반대로 우선 견성을 하면은 망념이 본적인 줄 알고 진경이 본공한 줄 안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처님 말씀 거꾸로 뒤집는다 말이지.

왜 그러느냐. 다른 데 가서는 나 이렇게 설법을 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이 누리의 참된 주인공, 색신으로서인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인 법신, 허공으로서인 내라 말이지. 이전 어른들이 알았거든. 그러면 색신으로서인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인 내라 말이지.

허공 하면 허공을 위한 허공이 아니거든. 늘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허공이란 말을 써야 알아듣기가 쉽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말하는 건데 허공 자체에 있어서 슬기가 없으면 글자 그대로 허공이지만은, 슬기가 있는 허공은 빛이나 하면 바로 영지거든. 법신자리거든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마음 '發' 하여 방향 잡아가는 '회향'

⑩ 보개회향(普皆廻向)

南無至心歸命禮西方彌陀佛(一拜) 所有與我同行者 於一切處同集會 身口業皆同等 一切行願同修學 我此善賢殊勝行 無邊勝福皆廻向 普願沈溺諸眾生 速往無量光佛刹 願共諸眾生往生安樂國

보개(普皆)는 이제까지 말한 것 모두 ⑩. 예경제불(禮敬諸佛)에서 ⑩. 항순중생(恒順衆生)까지 거쳐 오면서 얘기한 것 모두라는 뜻.

회향(廻向)은 향방을 바꾸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회(廻)는 회전, 굴러서 돌린다, 돌이킨다. 향(向)은, 취향(趣向), 처음에 나무(南無)한 것처럼 나아가서 향한다. 어디로 나아가며, 무엇을 굴러서 돌리느냐, 돌이키느냐? 제가 닭은 선(善)을 돌이켜 보이다. 향(向)은 삼체(三處), 세 곳으로 향한다. 즉원할 때 나는 회향삼체실원만(廻向三處悉圓滿)하는 삼체인데 이는 실제(實際) · 보리(菩提) · 중생의 세 가지다. 실재는 실지로 있는 것, 이것이 원 주되는 것이고 본체다. 실제에서 무엇을 알고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이 보리이다. 깨쳐 나간다는 그것이 실제의 상(相)이다. 제중생(諸衆生)은, 즉 모든 중생에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덕을 베푸는 용(用)이다. 이렇듯 체상용(體相用)의 세 가지의 큰 것이 삼체가 된다.

회향이란 앞으로 또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복잡하다. 이는 마음이 좁고 용렬한 데에 꼭 막혀 있는 것을, 그것을 제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용렬하고 좁은, 혐열(狹劣)한 생각을 낳게 한 장애(障礙)를 제거한다는 것은 광대한 선을 내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는 아주 중대한 일이다. 회향이란 우리로 하여금 결국 방향을 잡아 나아가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를 발취도상(發趣道相)이라고 한다. 마음을 발하여 부처들이 모두 중덕(重德)한 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또 대도(大道)를 밟아 나가는 거룩한 보살(菩薩)들이 발심(發心)하여 수행한다는 뜻이 있다. 그런데 발심이란 아주 중요한 말이다. 발심이 있어야만 회향이 되어진다. 회향은 그 중심이, 마음을 발하여 나아가는 발심에 있다. 원효대사의 소년 시절의 작품으로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달리 발심의 내용을 개어 보자면 첫째는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둘째 해행발심(解行發心), 셋째 증발심(證發心)으로 되어 있다. 신성취발심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모든 것의 원 토대다. 믿음이 튼튼히 서고, 튼튼히 꼭 섰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의 머무른다는 것은 십주(十住)다.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것, 믿음이 굳어졌다는 덕은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십주의 수행 단계에 가서 서 있다. 십신위(十神位) 중에서, 즉 믿음을 닦아 나가는 절차 중에서 신심(信心)이 성취되면 자연스러이 이미 결정된 마음을 낸다. 결정된 마음이란 머물러 있고, 방일치 않고, 여실수행(如實修行)하기 때문에 이에 이르렀을 때는 그 발심은 믿음을 성취한 것이다. 둘째의 해행발심이란 오수(五修)의 십회향(十廻向)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된다. 믿음을 닦아나가는 실천적 행동을 돌

이와 같은 것을 이룩하는 것이 해행발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해행(解行)한다고 한다.

셋째의 증발심은 초지(初地)에서 십지(十地)에 걸친 지경의 발심을 이른다. 초지와 십지 또는 십주(十住) 등이 따로 따로 떨어져 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실명의 한 방법일 것이고, 실상은 다 하나의 것이라고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신(信)이 굳어진 것이 곧 지(地)의 지경에 있어서 신성취(信成就)한 발심(發心)과 해행(解行)한 발심의 이 두 가지를 상사발심(相似發心)이라고 한다. 상사(相似), 즉 근사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진짜는 아니라는 뜻이다. 발심해서 옮겨 마음을 낸다, 근사하다. 이런 말이다. 진짜 발심은 증득법신발심(證得法身發真心)이라고 하는데 이는 진리의 몸뚱이를 우리가 스스로 자체로서 체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이것이 증발심(證發心)이다. 그런데 실상은 해행발심(解行發心)이나 증발심은 나중에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고 중요하며 문제되는 것이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이다.

이 발심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직심(直心)이다. 원효대사는 또 이를 불곡(不曲)이라 하였다.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념(正念眞如法)이다. 둘째에는 심심(深心)이다. 이는 궁원지의(窮源之義), 아주 깊은 궁극의 연원(緣源)까지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 원류(原流)를 꿰뚫었다. 궁극하여 다달았다. 여기 이르러서 제선행(諸善行)을 참집(參集)하게 된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최우 원화 채경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임니다.

셋째는 대비심(大悲心)이다. 일체 중생의 고(苦)를 없애주어야겠다는 욕발일체중생고(欲拔一切衆生苦)다. 일체 중생이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직심(直心) · 심심(深心) · 대비심(大悲心)의 셋으로 신성취발심은 이루어 졌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최우 원화 채경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임니다.

리여 더욱 경험을 살리고, 더 잘되게 해보자는 것이 회향이다. 회향은 실행(修行)에서 얻어진다. 그런데 이 회향의 지경에 이르러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가, 내가 아는 것이 옳다든가, 나라는 것이 있어야겠다는가 하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법(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비어져 공(空)해진다. 자타(自他)의 관념이 없어져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마찬가지로, 그럴 바에는 내가 봉사해야겠다는 능해법공(能解法空)을, 그러니까 진리가 공(空)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에 이르렀을 때 또 이 우주의 대사회, 즉 법계(法界)에 수순(隨順)을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순이란 굉장한 것이다. 법계에 수순한다는 것은 육라라밀(六波羅蜜)을 닦고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가 순속해져 회향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올먼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흥분산 골굴사에서 45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 강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에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21세기 신화랑 캠프입니다.

- 일시** 2014년 7월 20일 ~ 8월 23일
- 모집 인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 토요일 12시 하산
- 대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련 회비** 1주-35만원 · 2주-70만원 · 3주-90만원 · 4주-110만원(교재비 포함하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 국민은행 :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접수문의** ☎ 054)775-1689, 744-1689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강의, 좌선, 108배
- 영 어 캠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깎지길 걷기 · 수대만들기, 경주남산단사 음천학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